

韓式木造建築技法의 特徵들

趙勝元·趙英武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조상들은 이 한반도에서 몸을 담고 사는 집을 지었다.

우리조상이 짓고 살았던 집의 원형적인 형식이 과연 어떠한이었을까? 조사 한 바에 의하면, 막살집, 움막집, 토막집, 오두막집, 귀틀집, 토담집…… 등이 존재하였다고 한다. 오늘날과 같이 집만을 지으며 생업을 삼던 직업인 없이 지었던 많은 선사시대의 살림집들은 포괄적으로 역사적이고 민속적인 소산물로써 그 특징을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건축직업인이 생긴 다음부터는 그런 민속적인 특징은 많은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미 과거에 목조건축의 기예는 일단 그 극치에 도달하였던 것 같다. 이는 신라시대에 지었던 것으로 알려진 경주 불국사라든가, 백제의 건축공장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지었다고 알려진 나라(奈良) 법륭사와 같은 건축유산들로 미루어 보아 입증될 것이다

흔히 건축역사가들이 고려시대중기에 남송과의 교류를 통하여 柱心包作 즉 柱上包作形式을 도입했고, 또 원과의 교류를 통하여 多包作 즉 柱上包作에 枋上包作形式을 결들인 형식이 도입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포작법(중국에서는 鋪作法이라고 함)은 원래부터 송나라의 것보다 기술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재래전통형식이 중국의 외래전통형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절충하면서 발전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추측은 송시대에 李明仲이 편수한 「營造法式」에 이미 補間包作이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외래형식을 그대로 도입하여 채용하지 않았음은 확실할 것 같다.

그러나 오늘날 한반도 전역에 산재되어 남아있는 주택, 궁원, 묘사, 학원, 문묘, 성곽, 불사……등 대부분은 이 조시대의 중기 이후에 지어졌던 것들이다. 이와 같은 건립시기는 上梁文의 四柱나 영조도감이 작성한 儀軌書에 의하여 고증되고 있다.

중요한 관역에 관한 보고서인 의궤서들은 정작 우리 건축기법의 발전이 이루어졌던가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것은 실로 불행스러운 노릇이었다. 한편으로 고유한 전통과 법식이 존재하였을지 모르고, 또 한편으로 재래형식과 절충하는 무엇이 존재하였을지도 모른다. 어디까지가 고유하게 발전해 온 것일까? 특히 우리의 풍토적 조건들을 어떻게 해결하였을까?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의 방법, 그 무형의 조각제도를 서술해두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최근에는 역으로 외국건축사들을 참고하여 우리 건축의 역사를 연구하는 경향마저 있다.

더우기 우리나라의 목조건축은 해를 거듭할수록 가구기술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외관의 화려함과 치장에 치우친 나머지 가구구조가 상당히 부실해졌다. 나무를 건축재료로 채용하면서 좋은 나무를 전혀 가꾸지도 않았다. 나무를 주요재료로 하는 구조기술이나 공법은 더이상 개발되지 못하였다.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외면당한 것이 실은 건축정책과 건축교육이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에도 별 차이가 없다. 이런 폐습은 지나친 건축행위의 제한과 건축교육의 부재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건축주의 사회적 신분별로 건축의 면적규모, 재료사용, 평면구성, 구조형식을 제한하고 규제하였다. 서민주택은 대가족제도의 가족수의 다소에 상관없이 단 10칸 내외의 柱首作 즉 平道里作의 집밖에 짓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높은 신분의 건축주와 불사건축에 한하여 비로서 주심포작과 다포작, 1翼栱作과 2翼栱作의 가구형식을 허용하였다. 그야말로 오늘날 건축역사에서 논하는 건축양식은 수요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던 것들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자유롭게 기예를 구사할 기회가 극히 적었던 것이다.

국가가 인재를 간택하는 파시제도만해도 문과와 무과를 정과라 목차하여 이의 출신자를 양반이라 우대하고, 음양과, 의과, 율과, 역과를 잡과라 목차하여 이의 출신자를 중인이라고 차별하였다. 토목과나 건축과는 아예 파시과 목에도 끼지 못하였고,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인이라하

여 상민의 신분밖에 가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건축공장은 정식으로 교육을 받을 길이 없었고, 그래서 번수밀에서 格物致知의 방법으로 기능을 보고 익혀야 했던 것이다. 복잡한 영조법식을 이심전심으로 전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누가 아무에게나 자기의 기능을 가르쳐주려고 했는가!

1945년 해방이후에는 건축전통은 겨우 몇 안되는 대목들에 의하여 그 명맥을 이었다. 그러나 그들조차 무형의 조작기예를 체제있는 지식으로 기록해두지 않았다. 1960년대에는 구한말시대에 기예를 익혔던 순수한 대목세대마저 이 세상을 떠났다. 이들로부터 애써 배운 교육세대가 남았다. 그러나 이 교육세대가 현장에서 먹통과 먹칼을 들고 치목을 지휘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도대목은 材를 따져 여러 가지 명건들에 사용할 나무를 가려 내고, 푼 즉 재의 분수를 헤아려 여러가지 名件들의 치수와 접합개구를 재단하여 치목시켰고, 초 즉 초본을 원촌으로 그려 조작시켰고, 품 즉 功限을 헤아려 임금을 주었다. 푼은 기본이 되는 재의 크기에 따라 치목 조작하는 분수법이고, 품은 제작명건의 대소와 경중 그리고 원근에 따라 한사람이 하루에 일하는 양 또는 이른바 품셈의 양이다. 초는 凶樣 즉 制度에 따르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諸作名件들과 그 조작제도들에 관한 용어들은 알기 어렵거나 또 아예 잊혀져 없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따라서 특히 조작법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가 무척 어렵다.

木作의 名件들만해도, 첫째 門契柱, 引枋, 引枋道里, 按草椽, 單雲椽, 翼椽, 台椽, 詹遮, 山彌, 限大, 巡閣板, 平交台, 小欄, 盤子…… 등 한문자표기와 우리의 구술발음이 같은 용어들이 있고, 둘째 기둥 柱, 들보 梁, 진흙 粘土, 기와瓦, 귀틀 耳機…… 등 우리의 구술발음이 한문자표기의 풀이와 같은 용어들이 있고, 셋째 추녀 春舌, 양서 仰舌, 쇠서 午舌, 머름 遠音…… 등 구술발음이 이 두가 되어버리는 용어들이 있다.

어느 경우에는 들보 梁을 그 架構位置에 따라 대들보 大梁, 중보 中梁, 중보宗梁 등 세가지로 그 名件을 가르키는 복합용어를 만들지만, 만약 六架椽三切拳折架構가 아니고 八架椽四切拳折架構이나 十架椽五切拳折架構이면 달리 복합용어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중보를 二架梁, 그다음 들보를 차례로 四架梁, 六架梁, 八架梁, 十架梁 으로 구별하여야 할 것이고, 十架梁五切拳折架構의 十架梁이 이른바 大梁 또는 大檐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들보가 모두 兩頭梁이 아닐 경우가 있다. 들보머리 즉 梁頭란 도리를 얹는 쪽을 말하고, 들보꼬리 즉 梁尾란 어떤 기둥에 入柱하는 쪽을 말한다. 그래서 兩頭梁, 單頭梁 兩尾梁이 있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 單頭梁이 二重, 三重으로 같은 內高柱에 入柱하는 경우가 있다. 이 單頭梁을 간단히 退梁이라

고 할 수도 없다. 왜냐 하면 退梁은 半間길이의 들보를 가 르키기 때문이다.

이런 예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한가지 더 기둥의 造作 制度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立柱法에 두가지 造作 制度가 있다. 하나는 기둥의 귀솟음 즉 生起法이고, 또 하나는 기둥의 안쪽림 즉 側脚法이다. 生起法은 정면의 間數에 따라 中央平間의 兩柱높이를 기준으로하여 그 좌우에 세우는 기둥높이를 차례로 높여 귀기둥을 솟게 하여 기둥머리선의 水平錯視를 교정하는 법이다. 側脚法은 정면이나 측면의 平間의 兩柱를 수직으로 세우고 그 좌우에 세우는 기둥머리를 조금씩 안으로 쏠리게 하여 기둥선의 垂直錯視를 교정하는 법이다. 間數에 따라 귀를 솟게하는 生起높이와 정면과 측면의 기둥을 안쪽으로 쏠리게 하는 側脚치수가 있다. 네귀의 기둥은 거의 추녀방향으로 쏠리게 되고, 고층樓屋의 층주도 이에 준한다. 이런 경우 接合開口의 治木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짐작이 갈 것이다. 이래야만 架構構造가 견고해 지고 또 形態美가 조화된다.

이처럼 과거의 諸作制度를 규명하여 순수한 건축용어들을 가지고 설명하려면 말을 찾지못하여 무형의 기예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부터 제기하게 된다.

새로운 감상력을 가지고 과거의 건축유산을 관조할 적에, 상상이외로 무진장한 전통의 풍부함과 운치를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른다. 단지 有形의 전통만이 아니라 숨어있는 無形의 전통을 발견해내어야 할 것이다.

사치하지 않고 초라하지 않은 建築美, 자연조건들을 최대한으로 생활공간 속에 융합시킨 창의력, 소박한 생활공간을 인간의 性情을 높이고 俗氣없는 사색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던 멋, 숨겨진 부분을 견고히하고 또 노출하여 보이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意匠하던 솜씨, 학술적인 法式에 의존하지 않고 靈氣에 넘친 즉흥적 감각을 표현하던 슬기…… 등 건축을 하면서 의도하던 그 根源들을 알아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인들이 기록해둔 풍수지리설이나 택리설뿐이라! 한 반도에서 집을 지었으며 아무런 유언 하나 남기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 한 수많은 무명의 건축인들이 했던 創作根源들이 영원히 수수께끼로만 존재하면서 풀리지 않을 것인가!

집터를 골라 잡을 경우에는, 높은 主山이 내려와 머물러 던진 곳, 앞쪽으로 마주 대할 案山과 주변을 굽어흐르는 水口를 잘 만난 左青龍과 右白虎의 품안에 집터, 즉 基址를 선택하였다. 우뚝하게 들어간 濕地엔蓮塘을 마련하고, 丘陵엔 정자나 臺榭를 지었다. 삼국시대 이래의 고려와 이씨조선의 궁터들을 살펴보면, 땅을 깊이 파거나 두텁게 메우는 법이 별로 없고, 주위의 지세나 환경이 천연적으로 整地에 가까웠다. 이렇게 궁원, 명소의 사찰,

명문의 鄉村住宅에 이르기까지 다 자연에 치중한 셈이다. 집터의 요점은 자연조건들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地勢의 中心處를 선택하여 경치를 더하는 것으로, 마치 인체의 배꼽같은 것이었다.

이곳에 집을 지으려면 목조건축의 이치를 우선 깨우쳐 알아야 한다. 나무를 하나하나 깎아서 맞추어 짜올려야 한다. 주위환경, 지세, 규모뿐 아니라 地台, 基檀, 기둥 높이, 기둥치수, 기둥간격, 두공의 치수, 처마길이, 擧折, 추녀, 단청...등등이 서로 조화되어야 한다.

단층인 平屋과 고층인 樓屋, 平道里作과 翼棋作, 그리고 包作, 네모, 육모, 팔모의 亭子와 台榭, 기둥의 네모 附斂과 둥근 배흘림, 檜枋과 平根, 合根과 花盤, 單雲拱 料拱, 추녀와 서까래, 기와와 마루.....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중심을 잃지 않고, 요소의 각 부재가 서로 짜이고 얼싸져 이루어진다.

창과 문, 문살에도 은근한 정성이 깃들여져 있다. 면류관을 쓴 봉황새, 춤을 추는 학, 독수리 머리..... 등새의 종류들, 잉어와 거북등껍질.....등의 비늘모양들, 연꽃, 연꽃의 줄기와 잎, 석류꽃, 모란꽃,忍冬풀..... 등의 花草모양과 무늬들, 뭉게뭉게 이는 구름의 氣象도 새겨졌다.

이에 굿기단청, 모루단청, 금단청의 채화까지 곁들였다. 네 귀의 추녀와 선자연의 出起椽線, 추녀마루 좌우 팔방의 선자연 부채꼴의 曲面, 좌우 앞뒤 박공판이 이루는 합각마루의 椽線, 용마루 좌우 양단을 잇는 遠椽線 등 위로 아래로 중첩되어도 일사불란한 공통된 椽線型을 이루게 하였다.

이것들에서 풍기는 아름다움은 은근하고 소박하여, 뒷산과 그 나무들과 더불어 한층 더 소박하고 은근함을 자아낸다.

우리나라 木造建築技法은 대강 아홉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坐向法과 築台法, 둘째 기둥의 治木法과 生起 및 側脚法, 셋째 造梁法, 네째 귀추녀의 出起法, 다섯째 扇子布椽法, 여섯째 平交台의 連檐法, 일곱째 包作 列根法, 여덟째 樓屋 처마기둥의 浮柱法, 아홉째 用材法등을 열거할 수 있다.

첫째 坐向法과 築台法이다. 건물이 자리잡는 정면의 방향을 坐向이라고 하며, 주된 건물의 坐向을 정남향으로 잡았다. 그리고 처마기둥의 주춧돌 밖으로 사방에 지붕처마 落水線 안에 築台하여 수평면으로 높였다. 이 축대의 벽높이는 막돌 한 단에서부터 마름돌 몇 단에 이른다. 이는 집터의 기복에 관계없이 주춧돌의 기초를 다져 올려 사방에 축벽함으로써 배수를 처리하고 또 비교적 지붕의 부피가 커지는 형태의 균형을 시각적으로 안정시킬 뿐더

러 축대의 높이로써 構屋의 等度を 표시하고 또 構屋의 間數에 맞추어 높였던 것이다. 이것을 基台 또는 基檀이라고 한다. 築壁 사방에 들계단을 축조한 基檀을 階基라고 한다. 基檀은 單層인 것과 重層인 것이 있다. 흔히 三層으로 쌓아올린 祭壇을 壇이라고 한다.

주된 건물의 坐向軸이 평면배치의 配置軸이 되며, 이 配置軸을 중심으로하여 그밖의 여러채의 건물들이 位階秩序에 맞추어 적절히 배치되었다. 正殿과 正門, 本堂과 大門의 坐向은 정남향이 되는 것이다.

둘째 기둥의 治木法과 生起 및 側脚法이다. 기둥은 直柱보다도 原木의 생김새를 살려 옷단면의 구경이 약간 좁아지는 附斂角柱나 배흘림이 나온 胴張円柱로 많이 治木하였다. 그리고 정면이나 측면의 중앙칸 두 平柱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여 間數의 다소에 따라 귀처마기둥에 이르기까지 좌우의 기둥높이를 점차 높여 솟게하는 生起法과 기둥머리를 조금씩 안쪽으로 쏠리게 세우는 側脚法을 채용했다.

귀솟음은 기둥머리線의 水平錯視를 교정하고, 또 안쏠림은 기둥線의 垂直錯視를 교정하는 것 뿐 아니라 木骨造를 견고하게 짜마추기 위해서였다.

셋째 造梁法이다. 들보의 크기는 집을 짓는 나무들 중에서 가장 크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陸松과 같이 휘어 자라는 나무를 많이 사용하므로, 통이 큰 原木을 구하여 方正하게 재단한 直梁보다도, 나무가 휘어 자란 그대로의 형상을 최대한으로 살려 治木한 曲梁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렇게 陸松治木은 月梁이나 虹蜺梁을 治木하는 법과 달랐다. 지붕의 하중을 굽은 들보 등위에 얹었다. 半間單頭退梁은 지붕 擧折角度에 맞추어 牛肩形狀으로 治木하여 사용한 것이 많다.

네째 귀추녀의 出起法이다. 귀추녀도 들보와 같이 큰 나무를 사용한다. 보통 귀추녀의 口徑은 서까래의 口徑보다도 2~3배 이상 크므로, 귀추녀 머리를 보기 좋게 造頭하면, 그 귀추녀머리가 서까래머리보다 더 길게 出檐하고, 더 높게 生起하게 된다. 사라귀추녀도 마찬가지이다. 네귀에서 귀추녀와 사라귀추녀가 附斂形狀으로 이어져 出起한다. 귀추녀머리가 平間의 長椽머리보다 더 길게 처마도리에서 出檐한 길이를 生出길이, 더 높게 솟은 높이를 生起높이라고 구별한다. 이 出起에 맞추어 중앙의 長椽머리에서부터 귀추녀좌우의 扇子椽머리들까지 차례로 연결한 조맥이 평교대의 軌跡을 單처마曲線, 중앙의 浮椽머리에서부터 사라귀추녀 좌우의 扇子椽머리들까지 차례로 연결한 재맥이 平交台의 軌跡을 雙처마曲線이라고 구별한다.

다섯째 扇子布椽法이다. 長椽은 꼬리가 웃도리, 머리가

밑도리에 각각 경사로 얹혀지지만, 扇子椽은 모든 꼬리가 커추너꼬리를 중심으로 하여 집중되어 커추너 좌우편에 부채꼴 모양으로 붙여지고, 머리가 밑도리 위에 반힌 山枋위에 얹혀지므로, 커추너머리의 生起와 山枋의 양쪽 그리고 扇子布椽角度에 따라 扇子椽의 길이와 형상이 제각기 차례로 달라진다. 扇子椽의 몸통은 길게 휘어지고 그 꼬리는 납작하고 뾰족해진다. 주의할 점은 그 꼬리들은 귀추너 등위에 얹혀지지 않고, 귀추너 좌우에 차례로 붙여진다는 것이다. 扇子椽은 귀추너 좌우에 이를수록 점점 길어지고, 그 머리가 점점 높게 솟아오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서까래의 出檐길이가 비교적 긴 것이 특징이다.

여섯째 平交台의 連檐法이다. 귀추너머리에서 시작하여 좌우 단처마를 연결하는 平交台를 초막이, 사라귀추너 머리에서 시작하여 좌우 겹처마를 연결하는 平交台를 재막이라고 구별한다. 미리 平交台의 처마연결곡선을 假設하여 長椽과 扇子椽을 차례로 治木하는 것을 秤平法이라고 한다.

지붕도리의 사도를 잡아주기 위하여 기둥과 들보를 짜마추는 拳切法과 더불어 이 連檐法은 韓式지붕의 形態를 좌우하는 技法이 된다.

일곱째 우리나라의 고유한 包作列栱法이다. 우리나라의 包作法이 중국의 包作法과 다른 점들은 적지 않다. 우선 「빠침 불」자 처럼 굽은 모양의 제공을 사용하지 않았다. 또 아무리 제공의 出目이 많아져도, 出目마다 소첨차와 대첨차만을 重栱하고, 그다음부터는 장첨차를 사용한다. 흔히 이 장첨차를 장여라고 부르지만, 장여는 도리 바로 밑에 複棟하는 것인 만큼, 列栱에 重栱하는 長舌를 장첨차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内外로 出目하여 重栱하는 列栱數가 外出目數에 비하여 内出目數가 하나 더 많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여덟째 樓屋처마기둥의 浮柱法이다. 浮柱란 주춧돌 위에 세워지지 않거나, 또는 들보 등위에 세워지는 기둥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의 副階樓屋의 枋수層 처마기둥은 보통 半間정도 안으로 물려져 처마들보 또는 처마퇴량 등위에 세우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枋수층의 귀처마기둥은 별도로 對角線으로 얹은 귀처마들보 또는 귀처마퇴량 등위에 세우거나, 또는 별도로 밑에서 内通柱를 높인 것이 된다.

이와 달리 홀수층의 처마기둥은 内通柱를 높이거나, 또는 層처마기둥을 内柱위에 이어 세운 것이 된다. 半間씩 退間시키는 副階樓屋의 立柱法은 비교적 우리나라에서는 平面間數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半間退間 浮柱法이 우리나라 副階樓屋의 독특한 形態美를 자아냈다. 우리나라에는 한間退間的 副階 樓屋은 극히 드물다.

아홉째 用材法이다. 陸松과 같이 진이나 웅이가 많은 나무를 사용하려면 나무를 方正하게 治木하기 어렵다. 나무 자체의 결이 정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治木을 할 때, 여러가지 名件들의 나무를 이어서 마추는 接合開口를 재단하려면 우선 기준이 되는 寸數 즉 材를 선택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2道里作이면 기둥의 柱徑이 材가 되고, 또 翼栱作이나 斗作이면 제공과 첨차의 栱徑을 材로 삼았다. 일단 材가 선택되면, 이 기준치수에 맞추어 여러가지 名件들의 寸數와 接合開口들의 재단치수가 저절로 결정된다. 構屋의 制度와 間數에 따라서 이 材의 寸數가 달라지고, 또 그 材의 分數 즉 寸에 의하여 재단 治木되었다. 그 寸數에 상관없이 治木分數는 통일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런 用材法이 이른바 金律이라고 하는 比例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比例法이 비교적 자유스럽다. 그러나 이 比例法을 준수하지 않으면 많은 名件들을 짜마추는 木骨構造의 견고성이 약해진다.

과거의 大木, 과거의 都辺首들은 이런 고유한 기법들을 채용하여 건축유산들을 만들었다. 전통건축을 한다면 우리의 고유한 건축기법을 무시하고 사리에 어긋나는 설계, 시공감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기에 열거한 것들 말고도 더 많은 자세한 특징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筆者

趙勝元(CHO, sung-won) : 1901年 10月 21日 出生, 1923~1927年 韓式木大修業 및 從事, 1928~1930年 近代設計用役獨學 및 從事, 1931~1945年 土建合名會社 「建平社」 自營, 普成高 石造校舍 및 新館, 서울女高 本館 및 八角高層校舍, 道銑寺 도참원, 사이공市內 八角2層亭子 「平和堂」...등 設計監理, 현재도 건축활동중임.

趙英武(TCHO, yeong-mou) : 正會員, 현재 空間研究所所員.

新 刊

『窓 戶』

韓國建築大系 : I

著 者 : 張 起 仁

發行處 : 普成文化社

서울 鍾路區 貫鉄洞 19-21

電話(73) 7244 (74) 4365

登錄番號 ㉠ 第 1 - 599號

印刷 1980年 9月 1日

發行 1980年 9月 5日

價 格 : 4,500원